

대한양계협회소식



가금관련단체

AI 관련 질병관리본부 항의 집회



본회는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사)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최홍근)와 공동 주최로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소재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AI 관련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900여명의 양계·오리 생산자 및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AI로 인한 인체 감염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시나리오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떨어진 소비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질병관리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떨어진 양계산물 실적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국내 가금 산물 안전성에 대해 알려가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본문 86페이지 참고).

AI 보도관련 언론사 협조요청 방문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후 각종 언론에서는 추측성 기사 남발로 소비자들의 불안감 증폭에 따라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 단체는 지난 4월 25일 KBS, MBC, SBS 등 주요 언론사를 방문했다.

방송사들은 고병원성 AI 소식과 환경오염 및 방역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준동 회장은 “폐렴증상으로 보이는 사병을 마치 AI에 감염된 사례인양 보도가 되어 인체에 큰 위협이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된다.”며 “추측성 기사 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화할 것을 요청했다. 방송사 측에서는 “협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국익과 농가를 위해 심도 있게 파악 후 보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식약청 AI관련 항의방문 · 요구사항 전달



AI가 발생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산물이 음식점 등에 유통판매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전국 각 지방 식약청 및 시청 등 정부기관에 공문을 하달한바 본회 이준동 회장을 비롯한 가금관련단체장은 윤여표 식약청장을 직접 만나 책임자 문책과 함께 책임대책을 촉구했다. 윤여표 청장은 “AI 발생으로 인해 가금업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를 발송한 것은 죄송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가금류 소비촉진을 위한 지속 협조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가금관련단체는 △지휘책임자의 공식사과 △가금산물 소비위축에 대한 책임배상 △재발방지 약속과 대책 수립 △안전성에 대한 TV 광고방송 출연 및 일간지 광고 등을 요구 등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관계자와 협의를 가졌다.

닭고기 매장 철수한 흠에버 항의 방문

흠에버는 서울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자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생닭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지난 5월 7일 밝혔다. 이날 전



국 35개 매장은 철수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본회 이홍재 부회장 및 계육협회, 오리협회 실무진들은 흠에버 본점 닭고기 담당자를 직접 만나 항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가금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은 산물의 판매를 아예 중단한다는 것은 가금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한 바 가금산업 입장을 전하고, 추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흠에버 측은 항의방문 이후 다시 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강지원의 정책 데이트 출연 양계농가 어려움 대변, 양계산물 섭취 권장



본회 이준동 회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해 4월 24일 한국정책방송 KTV ‘강지원의 정책방송’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주부 대표 주선영씨도 함께 출연해 AI 발생원인, 발생시 정부 및 농가의

철저한 방역체제로 양계산물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준동 회장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협회 및 양계농가에서는 차단방역에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AI 발생으로 닭고기 및 계란의 소비가 줄면서 생산자 및 관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이해시키고, AI에 걸린 닭과 계란은 시중에 절대 유통될 수 없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전했다.

양계협회, 계육협회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난 2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와 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는 농림수산식품부 노수현 축산경영팀장, (주)하림 이문용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육계산업은 80%이상 계열회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건전한 발전을 위해 농가와 계열주체 간의 계약조건에서 농가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계열사별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원종계와 종계의 생산 쿼터조절이 필요하며 가축 계열회사업의 근거법이 미비한 실정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법령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날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양계

협회와 계육협회간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다.

기자간담회 AI 관련 항의집회 홍보 당부



5월 16일에 개최되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항의집회 계획에 앞서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축산전문지 기자들을 초청해 집회에 대한 취지와 세부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회를 비롯한 한국계육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전 가금업계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무분별한 행태에 따라 강력한 규탄과 AI 과대보도에 대한 언론사 항의 및 소비위축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을 전했다.

가칭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 해체 공식 요청

본회는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가칭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상임대표 윤홍근, 이하 한가회) 활동과 관련하여 협회입장을 밝혔다.

이준동 회장은 치킨외식산업계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가칭 한가회가 생산자 단체를 배제하고



생산자를 위해 쓰여져야 할 가금수급안정위원회 기금을 가금수급안정 위원들과의 상의없이 정부를 통해 유용하는가 하면 독자적인 행동으로 가금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설명하고 실체가 없는 한가회 해체를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또한 정부에서도 양계협회나 오리협회로 구성된 가금관련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일관된 업무가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본회 및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에서도 지난 달 한가회에 양계협회와 오리협회의 명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식 탈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가회는 내부적으로 사단법인체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로방문

이준동 회장, 경기도지회 방문

시가 전국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달 전남·북도지회를 방문한 이준동 회장은 양계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7일 경기도지회도 방문을 했다. 경기지역은 지난 4월 말 울산 지역에서 발병하면서 의심사례 신고가 몇 차례 접수되었고, 회원농가들은 이에 대한 불안감이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준동 회장은 “앞으로도 외부인 통제 및 소독에 철저하길 바란다.”



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전했다.

《 지회 · 지부 소식 》

전북도지회

AI 항의 집회 벌여



전북도지회(지회장 박옥룡)는 5월 14일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AI 관련 항의 집회를 벌였다. 전북도지회 박광식 차관분과위원장의 연설로 진행된 이번 대화는 △현, 78주령에서 연장해 100주령까지 노계도태 보상금 책정 요구 △산란지수 306개에서 파란율(5%) 감안한 법령 시정 요구 △SI 발생농장 생계안정자금 필요 등 AI발생으로 인한 보상금 시정에 대해 적극 항의했다. 이날은 본회 이흥재 부회장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는 등 집회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사무실 이전

전북도지회(지회장 박옥룡)는 업무 효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주소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06-1 전주시 재향군인회관 3층

전화 : 063)251-4627

팩스 : 063)251-1226

정읍육계지부

소비홍보 시식행사 개최

정읍육계지부(지부장 강서운)는 AI 발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비하락이 발생함에 따라 지



난 8일부터 4일간 정읍시 고부면 황토현 행사장에서 소비홍보 시식행사를 개최했다.

강광 정읍시장, 정읍시청 이재하 축산경영과장, 문갑섭 축산정책과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통닭 250마리, 닭죽 300인분 등 준비해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양계산물의 영양성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양심 & 정직 자동화 기사 물청소 전문

양계장 물청소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이제 Y&J로 연락주십시오

대표 : 양승호

사무실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796

전화 : (055)963-7264 휴대폰 : 010-5137-7264

팩스 : (055)963-7265 010-9388-7264

